가정책계획위원회와 회담했다. 이같이 미국 정부는 처음부터 300인 위원회의 미국에 대한 계획을 잘 알고 있었다. 이는 흔히 듣는 "왜 미국 정부는 로마 클럽이 국내에서 파괴적인 활동을 하도록 허용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다.

볼커의 금융정책은 영국 재무장관이며 300인 위원회의 회원인 제프리 하우(Geoffrey Howe)의 정책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는 어떻게 영국이 1812년 영미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미국을 조종하고 300인 위원회의 정책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 나라를 지배했는지 밝혀주고 있다.

올림피언의 신성한 의무

악마주의 그룹, 이를테면 '바람을 정복하는 모리아(Moriah)'라고 부르는 현대의 일루미나티, 디오니소스(Dyonisos) 숭배 그룹, 이시스(Isis) 숭배 그룹, 카타르파(Cathari), 보고밀파(Bogomil)라고 하는 비밀 엘리트 그룹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선발된 그들은 자신들을 '올림피언'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그들은 자신들의 권능과 위상이 전설에 나오는 올림포스 신들과 정말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마왕과 같은 자신들의 신이 있어서 자신들을 우리의 참된 신보다 위에 올려놓는다). 그들은 악마의 전능한 힘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실행할 책임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1. 300인 위원회의 감독 아래 통일된 교회와 금융제도를 가진 단일 세계정부—신세계질서를 확립한다. 1920년대와 30년대에 단일 세계정부가 자신들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들은 인간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신앙심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성을 깨달았고, 그것을 자신들이 의도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교회 조직'을 수립했다.

2 모든 국민국가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철저히 타파한다. 그것은 단일세계정부의 개념을 전파하기 위한 첫 번째 고려 사항이다.

3 종교의 파괴, 특히 기독교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위에서 말한 그들 자신의 종교만 예외로 한다.

4 마인드 컨트롤과 브레진스키가 말한 '테크노트로닉스'를 이용하여 모든 개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그 결과 펠릭스 제르진스키의 붉은테러단을 어린애 장난처럼 보이게 할 인간 로봇들과 가공스런 시스템이 창조될 것이다.

5 '탈공업화 제로성장 사회'라는 정책에 근거하여 모든 공업화와 핵에너지에 의한 전력 생산에 종지부를 찍는다. 컴퓨터와 서비스 산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 산업은 멕시코와 같은 노예노동력이 풍부한 나라에 수출한다. 이는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통과되자 현실로 드러났다. 공업의 파괴에 따라 미국의 실업자들은 아편, 헤로인, 코카인에 중독되거나 글로벌 2000으로 알려진 '잉여인구'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6 마약 복용을 부추기고 합법화시킨다. 포르노를 '예술'로 널리 받아들이게 하고 마침내 일상적인 것으로 만든다.

7 캄보디아의 폴 포트(Pol Pot) 정권이 이끌었던 실험을 응용하여 대도시의 인구를 격감시킨다. 로마 클럽의 한 조사기관이 폴 포트 정권의 대량학살 계획을 미국에서 작성하고 국무부의 고위직에 있던 토머스 엔더스(Thomas Enders)가 이를 검토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최근 300인 위원회가 캄보디아의 폴 포트 학살자들을 복권시키려 하는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8 과학 발전은 300인 위원회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제외하고 모두 억제한다. 특별히 목표로 삼는 것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이다. 그 중 가장 싫어하는 것이 최근 들어 300인 위원회와 그들

의 언론 앞잡이들이 경멸과 조소를 보내고 있는 핵융합 실험이다. 핵융합 기술의 개발은 위원회가 주장한 '천연자원의 한계' 이론을 날려버릴 것이다. 핵융합을 제대로만 이용하면 가장 흔한 물질에서도 천연자원을 한없이 추출해낼 수가 있다. 이처럼 핵융합의 응용은 무한하며 그것이 인류에게 가져다줄 이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9 선진국들에는 국지전을 일으키며 제3세계 국가들에는 전염병을 퍼뜨리고 기근을 맞게 하여 2050년까지 30억의 '쓸데없이 밥만 축내는 사람들'을 죽인다. 300인 위원회는 사이러스 밴스(Cyrus Vance)에게 어느 정도의 대량학살이 가장 적절한지 보고서를 쓰도록 위임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2000 리포트'라는 제목으로 제출되었는데, 전 대통령 제임스 얼 카터(James Earl Catter)와 그때의 국무장관 에드윈 머스키(Edwin Muskie)가 미국 정부를 대신하여 접수하고 승인했다. 「글로벌 2000 리포트」에 의하면 미국의 인구는 2050년쯤에는 1억 명까지 감소될 것이다.

10 대량실업을 일으켜 전 국민의 도덕심을 떨어뜨리고 노동자의 생산의욕을 꺾는다. 밴스의 보고서는 로마 클럽이 도입한 탈공업화 제로성장 정책으로 일자리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의욕과 희망을 잃은 노동자들이 알코올과 마약에 의지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젊은이들은 록 음악과 마약에 자극받아 체제에 반항하고 그 결과 가족 공동체의 뿌리를 흔들어 무너뜨리려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00인 위원회는 타비스톡 인간관계연구소에 청사진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다. 타비스톡은 윌리스 하몬(Willis Harmon) 교수의 지도 아래 스탠퍼드 연구소에 그 연구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 결과는 나중에 '물병자리 음모'로 알려지게 되었다.

11 위기 상황을 연달아 일으키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모든 인간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결정해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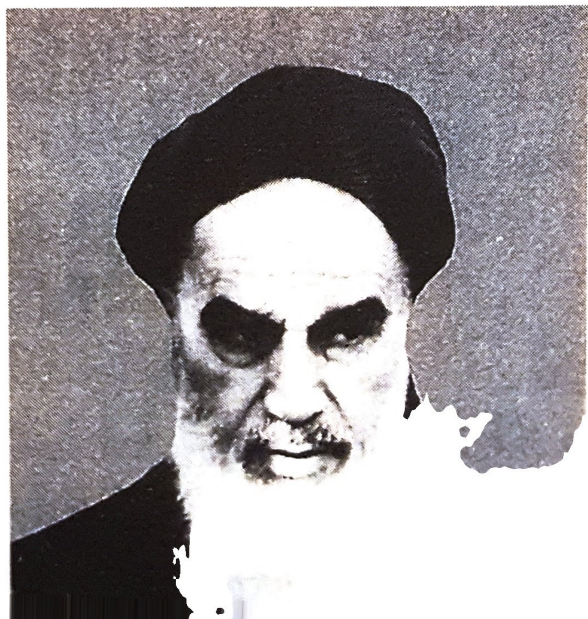
올림피언이 만들어낸 새로운 컬트, 비틀스

이 너무 많아진 인간들은 혼란과 의욕 상실과 무관심에 빠지게 된다. 미국에는 위기관리 기구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 연방긴급관리청(FEMA)이라 불리는 이 기관의 존재를 나는 1980년 초에 밝혀냈다. 연방긴급관리청에 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다.

12 새로운 '컬트'들을 들여오고 이미 제 몫을 하고 있는 것들은 밀어준다. 여기에는 추악하게 타락한 믹 재거의 '롤링 스톤스'(유럽의 검은귀족에게 특히 인기있는 록 그룹)와, 타비스톡 인간관계연구소가 만들어낸 '비틀스'를 비롯한 록 그룹들이 들어 있다.

13 영국 동인도회사에 봉사했던 다비(Darby) 경이 시작한 기독교 근본주의 신앙을 계속 지원한다. '신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이론에 따라 유대인을 다른 민족과 구분하고, 기독교의 목적에 대한 잘못된 믿음으로 엄청난 금액을 기부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부강에 공헌하게 한다.

14 이슬람 형제단, 이슬람 원리주의, 시크교 같은 신앙의 확산을 억제하고 짐 존스와 '샘의 아들' 형태의 마인드 컨트롤 실험을 추진한다. 고 아야톨라 호메이니(Ayatollah Khomeini)가 일반적으로 MI-6라고 알려진 영국 군사정보부 제6과 출신이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나는 1985년에 발표한 『이란에서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What Really Happened In Iran?*』라는 책에서 이미 보고한 적이 있다. 이 책에서 미국 정부가 호메이니에게 권력을 잡게 한 단계적인 과정을 일일이 폭로했다.

15 '신앙의 자유'라는 사상을 세계에 수출하여 기존의 종교, 특히 기독교의 뿌리를 흔든다. 이는 예수회 해방신학으로 시작하여 니카라과에서 소모사(Somoza) 가문의 지배를 무너뜨렸고, 이제 25년 동안 내전에 신음하는 엘살바도르를 파괴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와 온두라스도 혁명 운동에 휩쓸리고 있는데 예수회가 선동하고 있다. 이른바 해방신학에 참여한 활동적인 단체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메리놀 선교회(Mary Knoll Mission)이다. 몇 년 전 엘살바도르에서 메리놀의 수녀 네 명이 살해당하자 언론이 떠들어

됐던 것도 이해가 된다. 이 네 명의 수녀들은 공산당의 파괴 공작원들이었는데 그 활동은 엘살바도르 정부에 의해 널리 입증되었다. 미국의 언론과 방송매체는 엘살바도르 정부가 가졌던 많은 문서들을 발표하기를 거부했다. 이 문서들은 메리놀 수녀들이 그 나라에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 보여준다. 메리놀은 많은 나라에서 공작활동을 하고 있으며 로디지아, 모잠비크, 앙골라, 남아프리카에서 공산주의를 퍼뜨리는 주도적 역할을 했다.

16 세계 경제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정치적 혼란을 빚게 한다.

17 미국의 국내외 정책을 조종한다.

18 국제연합(United Nations : UN),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초국가적 제도를 강화시키고 300인 위원회의 목적에 장애가 될 국지적 기관들은 점차 폐지하거나 UN의 영향 아래 두어 그 힘을 될 수 있는 대로 약화시킨다.

19 모든 정부의 중추에 침입하여 타도하고 정부가 대표하는 국가주권을 내부에서 파괴한다.

20 세계적인 테러리스트 그룹을 조직하고 테러 활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과 교섭한다. 이탈리아와 미국 정부에게 모로 수상과 도지어(Dozier) 준장을 납치한 붉은여단과 교섭하라고 설득했던 사람이 베티노 크락시라는 게 생각날 것이다. 여담이지만 구출되었던 도지어 준장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말하지 말라는 엄명을 받았다. 그가 언젠가 그 침묵을 깬다면 틀림없이 키신저가 다루었던 알도 모로, 알리 부토, 지아 울 하크 장군과 마찬가지로 '끔찍한 본보기'가 되어 죽을 것이다.

21 미국의 교육을 통제하여 철저히 파괴한다. 1993년에는 이 정책의 효력이 분명해지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결과본위교육(OBE)을 채택하기 시작하였으니 그로 인해 국민 교육은 더욱 파괴될 것이다.

1969년에 내가 처음으로 밝혀낸 이러한 목표들의 많은 부분은 그 이후로 이미 달성되었거나 지금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300인 위원회의 프로그램 가운데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경제정책의 핵심이 주로 맬서스의 가르침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영국에서 한 시골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300인 위원회의 모델이 된 영국 동인도회사(BEIC)에 의해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

맬서스는 인간의 진보가 한정된 사람들을 떠받칠 지상의 천연자원에 달려 있고, 그 한계를 초과하면 제한된 자원은 급격히 고갈된다고 주장했다. 천연자원이 모두 소모되면 이를 대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감소하는 천연자원의 한계 안에서 인구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맬서스는 말했다. 엘리트 계급이 '쓸모없는 식충이들'의 증가에 위협받고 싶지 않아 도태를 실행하리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전에도 말했듯이 '도태'는 오늘날 진행되고 있으며, 그 방법은 「글로벌 2000 리포트」에 제시되어 있다.

300인 위원회의 경제계획은 맬서스와 하예크의 이론이 교차하는 곳에 있다. 하예크는 로마 클럽이 지원하는 또 한 명의 파멸과 암흑의 경제학자이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그는 오랫동안 데이비드 록펠러의 지배 아래 있었으므로 그의 이론은 미국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하예크에 따르면 미국 경제의 토대는 (a) 도시 암시장 (b) 홍콩식 소규모 노동착취 산업 (c) 관광산업 (d) 투자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며 마약거래가 번창하는 자유무역지대 (e) 모든 공업활동의 종말 (f)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폐쇄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예크의 생각은 로마 클럽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된다. 아마도 그래서 그는 미국의 우익단체에서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는 듯하다. 하예크의 생각을 물려받은 젊은 경제학자 제프리 작스(Jeffrey Sacks)는 폴란드로 파견되어 하예크가 중단했던 연구를 떠맡았다. 로마 클럽이 폴란드의 경제 위기를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졌던 일

이 생각날 것이다. 그렇다면 똑같은 경제계획이 러시아에 강요되더라도 광범위한 반대에 부닥치면 이전의 물가지지 정책이 곧 회복될 것이다. 이런 모든 생각의 배후에는 폴란드와 러시아의 공업 확장을 저지하려는 음모가 숨어 있다.

300인 위원회는 로마 클럽에게 명령하여 폴란드의 국수주의를 이용해서 가톨릭 교회를 파괴시켰고 러시아 군대가 폴란드를 재점령할 수 있게 했다. 자유노조연대는 300인 위원회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가 이끌어낸 산물이었다. 그는 노조에 '연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임원과 조직책을 선발했다. 자유노조연대는 그다인스크 조선소 노동자들을 이용하여 일으키기는 했지만 '노동운동'이 아니라 분명한 입장을 지닌 정치적 조직이며 단일세계정부 출현을 준비하기 위해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만든 것이었다.

'연대'의 지도자들 대부분은 오데사 출신의 볼셰비키 후예들로서 반공주의자들이 아니었다. 미국의 언론매체들이 빠짐없이 보도한 이유를 이해할 만하다. 작스 교수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련에서 갓 풀려난 폴란드를 다시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는 작업을 추진했다. 폴란드의 경제는 이제 미국에게 예속될 것이다. 결국 주인이 바뀌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을 위협하는 테크노트로닉 시대